

35장. 에돔의 산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신탁은 25:12-14에서 간략히 선포하였는데, 35장에서 그 주제를 다시 다룬다. 에돔의 산에 대한 35장의 심판은 36장에서 이스라엘 산의 회복과 대비가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에돔의 산에 대한 심판을 대비하여서 서술하고 있다.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조롱하였을 뿐 아니라 옛적의 미움을 품고 칼로 약탈하였다(35:5). 그들이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황폐케 하실 것이다(참조. 사 63:1-6).

에돔은 두 민족과 두 땅,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자기의 땅이라고 호언하면서 악행을 하였다(참조. 시 137:7; 오바댜).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땅에 여호와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이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황폐케 될 때에 기뻐한 그들을 황폐케 하시고 대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잔인한 세일 산을 황무케 하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알리실 것이다.